

연변 조선족 아동의 공격성과 개인적 특성, 가정환경 및 학교환경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s among Personal Characteristics, Home and School Environment, and Aggression of Korean-Chinese Children in Yanbin*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연구원 박민정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전공
교수 박혜원

College of Human Ecology, Kyunghee University

Researcher : Park, Min-Jung

Dept. Child &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Professor : Choi, Hyewon Park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personal characteristics(sex, self-concepts, depression, fear, internal locus of control), home environment(physical and psychological environment, parenting style, attachment to mother), school environment(teacher support, peer victimization), and Korean-Chinese children's aggression in Yanji, China. Two hundred and two(90 boys and 112 girls) 6th graders rated themselves on a questionnaire.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conducted using SPSS Window vers.12. Alienation to mother, and overt and relational victimization by peers were positively related, and communication with mother was negatively related to children's proactive aggression. Alienation to mother, and overt victimization by peers were positively related, and communication with mother, support by teacher were negatively related to children's reactive aggression. Alienation to mother, and overt and

Corresponding Author: Choi, Hyewon Park, Dept.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37-308 Mookco-2dong, Namgu Ulsan,

Korea Tel: 82-52-259-2367 Fax:82-52-259-2888 E-mail: hyewonc@mail.ulsan.ac.kr

* 본 연구는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3-072-HM2001).

relational victimization by peers were positively related, and communication with mother and support by teacher were negatively related to children's relational aggression. The factor with the greatest contribution to explaining the aggression of Korean-Chinese in Yanbin was the alienation to mother.

주제어(Key Words): 조선족 아동(Korean-Chinese Children), 공격성(aggression), 개인적 특성(personal characteristics), 가정환경(home environment), 학교 환경(school environment)

1. 서 론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조선족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조선어를 제 1언어로 사용하며, 중국 속에서 한국문화를 지켜가고 있는 독특한 지역이다. 중국에 위치하면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연변 지역은 환경이 인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통일된 한반도를 준비하는 데 있어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한국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조선족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조복희, 박혜원, 이사라, 이주연, 박민정, 2005; 조복희, 이귀옥, 박혜원, 이진숙, 한세영, 2004)은 연변 지역의 조선족이 급격한 인구 이동과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조선족 학교 및 학생 수의 감소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부모의 나라로 인식하던 한국보다는 자신의 국적국가인 중국에 대한 소속감을 더욱 긴밀히 하고 있음을 보고한다. 이에 따라 조선족 사회가 지금까지 유지해 온 언어와 민족적 전통이 차츰 사라지고 중국 주류사회에 편입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중국 조선족들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한국과 중국 간의 복잡한 정치 경제적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 동북공정과 같은 현상에서 나타나듯이 국제적인 갈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여, 다른 지역의 동포들보다 더 많은 정체감 혼란을 경험하리라 추측된다. 또한 부모가 한국 등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현상이 증가하여 가정이 붕괴되는 현상이 빈번하여 이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이중 삼중의 적응문제에 봉착하였다 볼 수 있다.

조선족 아동과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은 향후 조선족 사회의 발전과 더 나아가 한반도의 장래에도 부정적 영

향을 미치리라 예측되므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고, 연변 조선족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아동기의 공격성은 아동의 발달에서 현재의 부적응 행동 뿐 아니라 차후의 심리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의 공격성 연구에 따르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은 크게 자아존중감이나 자아개념(이민아, 1999), 불안과 우울 등과 같은 아동의 개인적 특성(박민정, 최보가, 2004; Crick, & Grotpeter, 1995),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에 대한 애착 등과 같은 가정환경 요인(Perry, Perry, & Ramussen, 1986; Slay & Guerra, 1988; Tuner, 1991), 학교나 또래 환경들(박민정, 최보가, 2004; 이상균, 1999; Parke & Slaby, 1983)과 아동이 거주하는 사회의 문화 및 가치관(Fagan, Pipper & Moore, 1986; Riner, 2000)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동의 개인적 특성을 공격성의 주원인으로 간주하는 연구들(Crick & Grotpeter, 1995; Crick & Werner, 1998)은 아동의 개인적 특성을 변화시키면 공격적 성향이 변화될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이는 공격성을 지나치게 개인적 책임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고, 실제로 아동이 속해있는 환경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개인적 특성의 변화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가정환경과 공격성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김민정, 도현심, 2001; 장지순, 1999)은 가정환경 요인 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공격성은 아동중기에 도달하면서 가정의 영향보다는 학교나 또래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편이고(이상균, 1999; 정재임, 2000), 또한 아동이 속해있는 사회체제 등과 같은 거시체제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대두된다(French, Jansen, & Pidada,

2002; Hart, Nelson, Robinson, Olsen, & McNeilly-Choque, 1998). 따라서, 최근의 공격성 연구는 단일 요인과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보다는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박민정, 2003; 이상균, 1999; 정재임, 2000). 그러나 이러한 생태학적인 관점의 연구들도, 거시체계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에는 한계를 보여왔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와 동일 민족이면서 다른 거시체계내에서 생활하는 연변 조선족 아동들은 생태학적인 체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라 볼 수 있다.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함께 공격성의 유형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인데, 공격성은 크게 공격적 행동의 기능과 그 표현방식으로 구분된다. 즉, 공격행동이 주변의 자신을 해치려는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가 아니면 공격받은 것에 대한 반응인가에 따라 주도적 공격성(proactive aggression)과 대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으로 구분한다. 또한 그 표현방식이 쉽게 타인이 공격적인 것으로 판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언어적 폭력형태의 공격성인 외현적 공격성(overt aggression)과 쉽게 외부로 표출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소문 내기와 배척 등과 같은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으로 구분한다. 최근 Hart, Nelson, Robinson, Olsen, McNeilly-Choque, Porter와 McKee(2000), 그리고 Little, Jones, Henrich와 Hawley(2003)는 이 두 가지를 합하여 주도적-외현적 공격성, 주도적-관계적 공격성, 대응적-외현적 공격성, 그리고 대응적-관계적 공격성의 4가지 유형으로 공격성을 구분하기도 한다. 공격성의 유형에 관한 국내 연구(박성연, 강지훈, 2005; 박혜경, 박성연, 2002)들은 외현적 공격성을 그 기능에 따라 주도적인 형태와 대응적인 형태로 나누었고, 관계적 공격성은 단일유형으로 하여 총 3가지의 하위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선 행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공격성의 유형을 주도적, 대응적, 그리고 관계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공격성을 하위 유형에 따라 비교한 연구들은 외현적 형태의 공격성은 남아가 많고, 관계적 형태의 공격성은 여아가 더 많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최근의 일련의 비

교문화적 연구들(French et al., 2002; Hart et al., 2000)은 이러한 결과들이 개인주의적 사회에 국한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에 따르면, 전체주의 사회의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에는 외현적 공격성보다 관계적 공격성이 성에 관계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의 주요 구성요소로 인정되는 사회적 배척과 추방에 대한 위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Hart et al., 1998).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관계적인 공격적 행동이 남녀와 노소를 불문하고 많이 나타난다. 중국은 사회주의와 동양문화권이라는 전체주의 사회의 특징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흔히 인식되지만, 최근에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서구화로 인하여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다. 연변 조선족 아동의 공격성 유형에서의 성차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 중국의 조선족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이제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아동의 공격성 관련연구들은 그 대상이 한국내 거주아동만을 주로 대상으로 하였기에, 공격성에 미치는 사회의 문화나 가치관에 대한 추측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최근의 공격성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들은 앞서 언급한 아동의 개인적 특성이나 가정 학교 및 또래 환경뿐 아니라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의 체제도 아동의 공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아동과 동일한 민족이면서도 이념과 사상이 다른 중국이라는 사회환경 속에 살고 있는 중국 길림성의 연길시 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기의 대표적인 부적응 행동으로 간주되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체제가 다른 사회에 살고 있는 조선족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급변하는 사회 및 정치적 변화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공격행동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을 제시하여 조선족 아동의 안녕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목적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연변 조선족 아동의 공격성과 개인적 특성, 가정 및 학교 변인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연변 조선족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의 조선족 소학교 6학년 학생 202명(남아 90명, 여아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부의 평균 연령은 41.4세이고 모의 평균연령은 38.8세였고, 부의 학력은 고졸이 42.6%, 대학이상이 40.1%였으며, 모의 학력은 고졸이 43.1%, 그리고 대학 이상이 38.6%였다. 부의 직업은 다양하였고, 모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18.8%였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취업모의 비율이 81.2%를 차지하였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1,000-2,000위안이 33.2%, 2,000-3,000위안이 26.2%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공격성

연변 조선족 소학교 학생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Crick과 Grotpeter(1995), Dodge와 Coie(1987), Hart와 동료들(2000)의 척도와 박민정(2003)의 척도를 참고로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주도적-외현적(이하 주도적), 대응적-외현적(이하 대응적), 그리고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할 수 있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2문항을 제외한 18문항(주도적 공격성 6문항, 대응적 공격성 6문항, 관계적 공격성 6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도적 공격성은 목적지향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폭행과 같은 신체적인 공격행동과 욕설이나 폭언과 같은 언어적인 공격 행동들로 직접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공격행동을 의미하고, 대응적 공격성은 또래에 의한 도발에 대해 신체적이나 언어적 형태로 적대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공격형태를 의미하고, 관계적 공격성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서

또래를 놀이과정이나 친구집단에서 소외시키기, 나쁜 소문 퍼뜨리기 등과 같이 또래관계에 대해 해를 입히는 공격형태를 말한다.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 “언제나 그렇다”의 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로 주도적 공격성은 .92, 대응적 공격성은 .85, 그리고 관계적 공격성은 .87로 나타났다.

2) 아동의 개인적 특성

(1) 자아개념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Harter(1990)의 청소년용 자기-지각 검사(Self-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를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원래 척도는 9개 하위 영역(학습 능력, 사회적 수용, 운동능력, 외모, 전반적 자기 가치감, 우정, 직업능력, 낭만적 매력, 행동)의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45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5개 하위 요인 총 20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용된 요인은 학습능력, 운동능력, 외모, 전반적 자기 가치감, 그리고 행동 자아개념이고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를 Cronbach α 를 통해 살펴보면, 학습능력 자아개념이 .58, 행동 자아개념은 .51, 외모 자아개념 .63, 전반적 자기 가치감 .61 그리고 운동능력 자아개념이 .52로 나타났다.

(2) 내적통제감

아동의 내적통제감을 측정하기 위해 민하영(1999)의 내·외적 통제감척도 중 내적 통제감을 측정하는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의 1점에서 “매우 동의함”의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척도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가 낮은 2문항을 제외한 총 8문항이 사용되었고, 남은 8문항의 신뢰도는 .77로 나타났다.

(3) 불안과 우울

아동의 불안과 우울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Achenbach과 Edelbrock(1983)이 제작한 4-18세용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국내에서 표준화시킨 K-CBCL(오경자, 이해란, 홍강의, 하은혜, 1997)에서 불안

과 우울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각각 5문항씩을 사용하였다. “전혀 아님”의 1점에서 “자주 그러함”의 3점 척도이며, 이들 문항의 하위 차원별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불안이 .77이고 우울이 .66으로 나타났다.

3) 가정환경

(1)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정의 심리적·물리적 환경
아동의 가정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아동학회(2002)의 아동발달백서를 참고로 부모의 양육행동 및 가정의 심리적·물리적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문항은 총 14문항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7문항과 가정의 심리적·물리적 환경에 관한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각각 온정성(3문항)과 통제성(4문항) 차원으로 구분되고 5점 척도로 차원별 점수가 높을수록 온정적, 통제적 양육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71과 .66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척도는 심리적 환경 4문항과 물리적 환경 3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5점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5과 .56이었다.

(2) 애착

애착의 측정은 Armsden과 Greenberg(1987)의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원본을 번안한 설문지에 의해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아버지, 어머니 각각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래 IPPA는 Likert식 5점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4점 척도화하여 사용하였다.

IPPA는 세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 부모가 내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시에 나의 의견을 고려하며, 이를 이해하려 노력하는지에 관해 묻는 10개의 문항이다. 둘째는 신뢰감(trust)문항으로 걱정이 있을 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나를 믿어준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부모님을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소원감(alienation) 요인은 집에서 나에게 무관심하며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좌절이나 침체 등을 묻는 8개

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28개로 구성된 애착척도를 요인분석 하여 3개 요인에 포함된 19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1점부터 4점 Likert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애착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의사소통은 .89, 신뢰감은 .74, 그리고 소원감은 .80으로 나타났다.

4) 학교환경

(1) 교사와의 관계

노숙영(1997)의 학교생활 적응척도에서 교사관련문항만을 사용하여 아동과 교사와의 관계를 측정하였다. 사용된 문항은 총 7문항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교사가 한명이라도 있는지, 선생님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1점부터 4점 Likert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68로 나타났다.

(2) 또래관계

또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박민정, 최보가(2004)의 또래 괴롭힘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래 괴롭힘 척도는 12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괴롭힘(5문항)과 관계적 괴롭힘(3문항)의 총 8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로부터 괴롭힘 피해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외현적 괴롭힘은 .87이고, 관계적 괴롭힘은 .83으로 나타났다.

3. 조사 절차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의 경우, 현지에서 사용하는 조선족 언어가 한국어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에 유학 온 조선족 학생들이 연구자들이 만든 설문지를 검토하도록 한 후 중국에서 사용하는 조선족 언어로 부분 수정하여 제작되었다. 설문지는 문항 수에 따른 응답시간을 고려하여, 아동의 자아개념, 내적통제, 불안, 우울, 가정환경, 양육태도 및 교사관계를 측정하

기 위한 설문지 1과 공격성, 어머니와의 애착, 또래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 2로 구성되었다. 그 후, 2004년 12월 9일에 연구자들이 소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12월 9 - 10일 사이에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완성하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 PC+ Vers. 12를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실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공격성 하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공격성과 관련있는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변 조선족 아동의 공격성과 개인적 특성,

가정 및 학교변인과의 관계

공격성의 각 하위유형과 아동의 성, 자아개념, 내적 통제감, 불안, 우울,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또래 괴롭힘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도적 공격성은 어머니와의 소원성($r=.37$),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외현적 괴롭힘($r=.34$) 및 관계적 괴롭힘($r=.27$)과 정적인 상관관이 나타났고, 어머니와의 의사소통($r=-.15$)과는 부적인 상관관을 나타내었다. 대응적 공격성은 어머니와의 소원성($r=.36$),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외현적 괴롭힘($r=.15$)과 정적인 상관관이 나타났고, 어머니와의 의사소통($r=-.18$)과 교사관계($r=-.20$)는 부적인 상관관을 나타내었다. 관계적 공격성은 어머니와의 소원성($r=.30$),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외현적 괴롭힘($r=.30$) 및 관계적 괴롭힘($r=.27$)과 정적인 상관관이 나타났고, 어머니와의 의사소통($r=-.15$)과 교사관계($r=-.19$)와는 부적인 상

관을 나타내었다.

아동의 개인적 특성은 조선족 아동의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관을 나타내지 않았고, 가정변인 중에서 심리적 및 물리적 환경과 온정적·통제적 양육태도는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2. 연변 조선족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연변 조선족 아동의 공격성과 상관관이 있다고 나타난 어머니와의 애착 소원성 및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외현적 및 관계적 괴롭힘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는 그 결과이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변 조선족 아동의 주도적 공격성에는 어머니와의 소원성($\beta=.37$, $p<.001$)과 또래로부터의 외현적 괴롭힘 경험($\beta=.21$, $p<.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응적 공격성에는 어머니와의 소원성($\beta=.35$, $p<.001$)이 그리고 관계적 공격성에는 어머니와의 소원성($\beta=.21$, $p<.01$)과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외현적 괴롭힘($\beta=.21$, $p<.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변조선족 아동의 주도적 공격성은 어머니와의 소원성이 높을수록 높고, 또래로부터 외현적 괴롭힘을 많이 당할수록 높았다. 대응적 공격성은 어머니와의 애착에서 소원성이 높을수록 높았고, 관계적 공격성 역시 어머니와의 소원성이 높고, 외현적 괴롭힘을 많이 경험할수록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연변 조선족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격성의 각 하위유형과 아동의 성, 자아개념, 내적통제감, 불안, 그리고 우울 등의 개인적 특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개인적 특성은 조선족 아동의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공격성 하위유형간의 긍정적 혹은

<표 1> 연변 조선족 아동의 공격성과 아동의 개인적 특성, 가정 및 학교환경간의 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 주도적공격성																							
2) 대동적공격성	.36***																						
3) 관계적공격성	.57***	.54***																					
4) 성	.00	-.01	-.09	1																			
5) 한양자아개념	-.06	-.02	.02	.15*	1																		
6) 운동자아개념	.05	-.05	-.07	-.14*	.18**	1																	
7) 외모자아개념	-.01	-.05	-.03	.02	.39***	.10	1																
8) 행동자아개념	.03	-.04	-.03	.17*	.48***	.29***	.26***	1															
9) 전반적자기감	-.05	-.06	.04	.09	.55***	.14*	.45***	.38***	1														
10) 내적통제	-.12	.06	-.08	.20**	.12	.08	.08	.24**	.17*	1													
11) 불안	-.04	.07	-.01	-.04	-.31***	.01	-.32***	-.19**	-.28***	-.07	1												
12) 우울	.02	.03	-.06	.03	-.11	-.00	-.12	-.03	-.14	.05	.41***	1											
13) 심리자기정량	.09	.05	.12	.04	.01	.04	.15*	.04	.12	-.06	-.12	-.12	1										
14) 물리적자기정량	-.02	.11	.08	.14	.09	.05	.14	.01	.09	.00	-.20**	-.11	.47***	1									
15) 온정양육태도	.06	.06	.05	.07	.10	.02	.13	.06	.15*	-.02	-.23**	-.11	.39***	.27***	1								
16) 통제양육태도	.00	.04	.06	-.05	.13	.14	-.00	.04	.15*	-.06	-.08	-.03	.29***	.25**	.31***	1							
17) 신뢰성	-.14	-.13	-.13	-.03	-.04	.03	.15*	.02	.07	.11	-.04	.05	.09	.12	.12	.13	1						
18) 의사소통	-.15*	-.18*	-.15*	-.08	-.03	.08	.08	.06	.03	.10	-.05	-.00	.10	.11	.06	.12	.76***	1					
19) 소원성	.37***	.36***	.30***	-.01	-.09	.01	-.18*	-.13	-.11	-.07	.13	.18*	-.10	-.10	-.09	-.18*	-.49***	-.60***	1				
20) 교사관계	-.09	-.20**	-.19**	-.01	.01	-.03	.04	-.02	.02	-.02	-.03	.04	.02	-.01	.09	.11	.41***	.47***	-.38***	1			
21) 외친척과목침환	.34***	.15*	.30***	-.15*	-.03	-.13	-.09	-.06	-.12	-.11	.10	.09	.04	-.03	.01	-.09	-.29***	-.29***	-.36***	-.28***	1		
22) 관계적과목침환	.27***	.06	.21***	-.04	.01	-.05	-.08	-.04	.00	-.01	.04	.08	.04	-.04	.04	-.08	-.32***	-.25**	.29***	-.28***	-.72***	1	

*p<.05, **p<.01, ***p<.001

〈표 2〉 연변 조선족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단계적 회귀 분석의 결과

공격성	독립변인	B	β	R ²	adjusted R ²
주도적 공격성	소원성	.42	.37***	.18	.17
	외현적 괴롭힘	.24	.21**		
대응적 공격성	소원성	.43	.35***	.12	.12
관계적 공격성	소원성	.25	.21**	.12	.11
	외현적 괴롭힘	.24	.21**		

p<.01, *p<.001

부정적 관계를 보고한 다수의 연구들(박민정, 최보가, 2004; Crick & Grotpeter, 1995; Rigby & Slee, 1993; Schippell, 2001)과 일치하지 않는다. 먼저, 연변 조선족 아동의 성과 공격성의 하위유형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공격성을 외현적으로만 정의한 다수의 연구들(윤리라, 1999; 김종미, 1997)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지만, 주도적 공격성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한 Camodeca, Goossens, Terwogt와 Schuengel(2002), Hart와 동료들(2000), 그리고 Kochenderfer와 Ladd(1997)의 결과와 관계적 공격성에서 남녀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 연구(김민정, 도현심, 2001; 박민정, 최보가, 2004; Hart et al., 1998)결과와는 일치한다.

공격성 하위유형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조선족 아동의 거주지인 중국의 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 추측된다. 먼저,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 공격성(또는 외현적 공격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Guerra, Huesman과 Spindler(2003)는 다수의 문화에서 성고정관념적인 양육으로 인해 여아는 남아보다 외부활동을 적게 하고 이로 인해 여아는 남아보다 지역사회의 폭력에 노출될 기회가 적고, 결과적으로 신체적 공격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이 되는 조선족이 거주하는 중국은 문화혁명 이후 사회전반에 남녀평등의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한 자녀의 수가 적음으로써 타문화권에 비해 남녀에 대한 성고정관념적인 양육이 매우 적은 편이고, 남녀의 역할 차이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다(조복희 외, 2005). 외현적 형태의 공격성인 주도적 공격성과

대응적 공격성에서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또한,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적 사회에서는 외현적 형태의 공격성에 대한 표출이 개인주의적 사회보다 더 많은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게서 상대적으로 은밀한 형태의 관계적 공격성이 더 많이 나타난다(French et al., 2002; Hart et al., 1998)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서구 문화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Crick & Grotpeter, 1995)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이 여아에게 훨씬 더 우세한 경향을 나타내지만, 동일한 민족이며 유사한 문화적 배경에 살고 있는 한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민정, 도현심, 2001; 박민정, 최보가, 2004)와 중국과 유사한 전체주의적 사회인 러시아 아동을 대상으로 한 Hart와 동료들(1998)의 연구, 그리고 핀란드 아동을 대상으로 한 Salmivalli와 Kaukiainen(2004)의 연구에서도 관계적 공격성에서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문화가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자아개념과 공격성 하위 유형간에 관련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Harter(1990)가 제안한 것처럼, 정서적 그리고 행동적 부적응에 대한 자아개념의 영향은 아동기 중기까지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연구문제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인적 특성 중 운동자아, 행동자아, 그리고 내적 통제성에서는 남녀아동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운동자아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긍정적이고, 행동자아와 내적통제성은 여아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과 공격성 간의 상관분석결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남녀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였을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남녀를 구분하여 다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아의 경우에는 여전히 개인적 특성과 공격성 하위유형간의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남아의 경우에는 운동자아, 행동자아, 그리고 내적 통제성과 관계적 공격성이 부적인 상관이 나타났고, 내적 통제성과 주도적 공격성간의 부적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연변 조선족 아동의 경우, 성은 공격성의 하위유형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른 변인들에 대한 매개 변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가정 및 학교환경과 연변 조선족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정의 심리적·물리적 환경과 부모의 온정적·통제적 양육태도는 공격성 각 하위유형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머니와의 애착 요인 중 의사소통과 소원성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외현적 및 관계적 괴롭힘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선족 아동의 주도적 공격성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관계가 소원하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또래로부터 외현적 및 관계적 괴롭힘을 많이 경험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응적 공격성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관계가 소원할수록,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이고 외현적 괴롭힘을 많이 경험할수록 높았다. 또한 관계적 공격성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관계가 소원할수록,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이고 외현적 및 관계적 괴롭힘을 많이 경험할수록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 있다고 한 Ireland와 Power(2004)의 결과와 안전 애착이 적을수록 아동의 주도적 및 대응적 공격성이 높다고 보고한 Marcus와 Kramer(2001)의 결과와 일치한다. 교사와의 부정적 관계와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괴롭힘 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주도적·대응적 그리고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박민정(2003)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아동의 가정환경 변인 중 가정의 심리적·물리적 환경과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공격성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정의 심리적·물리적 환경이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여러 연구(박혜경, 박성연, 2002; Hart et al., 1998; Perry, Kussel, & Perry, 1988)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주도적 공격성간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던 김민정, 도현심(2002)의 결과 및 청소년의 대응적 공격성은 가정내의 극단적인 폭력경험과 관련 있다고 보고한 Schwarz, Dodge, Pettit와 Bates(1997)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공격성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는, 양육행동과 공격성의 하위유형을 다르게 정의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심리적 물리적 환경에

대한 문항이 너무 적어서 변별력을 나타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있는 변인들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주도적 공격성은 어머니와 소원하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또래로부터 외현적 괴롭힘을 많이 경험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대응적 공격성은 어머니와 소원하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관계적 공격성 또한 어머니와의 애착 소원성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그리고 또래로부터 외현적 괴롭힘을 많이 경험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와의 애착 소원성은 연변 조선족 아동의 공격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외현적 괴롭힘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애착이 아동의 공격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는 서구 사회나 한국의 연구결과와는 조금 차이가 난다. 물론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동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긴 하지만,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부모보다는 학교나 또래 환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박민정, 2003; 박민정, 최보가, 2004), 연변 조선족 아동의 경우에는 여전히 어머니와의 애착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최근 조선족 사회의 변화는 조선족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 예상된다. 조선족 사회는 현재 자녀를 중국에 남겨두고 부모가 직업과 일자리를 찾아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 진출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세계일보, 2005년 1월 1일). 조복희 등(2005)의 조선족 아동에 대한 연구에서 2002년에 비해 2004년의 경우 부모와의 별거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때, 연변 조선족 아동이 현재에는 서구사회나 동일한 민족 집단인 한국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공격성 성향을 보이지만(조복희 외, 2005), 멀지 않은 장래에 한국이나 서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또래괴롭힘이나 학교 폭력 등과 같은 공격성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조선족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리라 예상된다.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외현적 괴롭힘이 어머니와의 애착 다음으로 연변 조선족 아동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또래로부터의 괴롭힘 피해 경험은 아동에게 폭력에 대한 일종의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Camodeca et al., 2002; Schwartz et al., 1997)나 한국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민정, 2003)에서,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관계적 괴롭힘 또한 아동의 공격성 하위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적 사회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이나 관계적 형태의 괴롭힘이 서구사회보다 쉽게 용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계적 괴롭힘 피해경험은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되지 않고, 개인주의적 사회보다 더 많은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 외현적 형태의 공격성이나 괴롭힘을 경험할 때, 훨씬 더 많은 충격을 경험하리라 예상된다(French et al., 2002; Hart et al., 1998). 또한, 또래부터 경험하는 외현적 괴롭힘은 연변 조선족 아동의 주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에는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지만, 대응적 공격성에서는 상관이 나타나진 하였으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응적 공격성이 주도적 공격성이나 관계적 공격성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 하위유형임을 시사한 박민정(2003)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는 아동기의 대표적인 부적응 행동으로 간주되는 공격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연변 조선족 아동의 발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공격성에 관한 비교문화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문화가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공격성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방법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에 대해 아동 자신의 지각으로 평정하였으나, 최근에는 정확한 비교문화적 연구를 위해서 동일한 관찰자가 아동의 공격성을 관찰하는 방법을 권장하는 경향이다(French et al., 2002). 따라서 차후에 조선족 아동에 대한 정확한 공격성 연구를 위해서는 자기평정, 또래 평정 그리고 관찰자에 의한 평정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조선족 아동의 경우 어머니와의 애착요인이

공격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조선족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모 분리 현상이 아동의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분리가 부모에 대한 애착과 관련하여 아동의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공격성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성이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 분석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만약 그러하다면, 아동의 적응에 대한 더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넷째,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매우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선행연구에서 영향이 보고된 일부 환경변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실시되지 않은 여러 환경 변인들(예를 들어, 아동의 개인적 특성 중에서 자기조절능력과 인지적 특성, 가정환경 중에서 부모의 학대나 부부간의 갈등, 그리고 대중매체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다면 아동의 공격성 연구에 대한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Harter(1990)의 척도로 아동의 자아개념을 측정하였는데, 다른 측정도구에 비해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자아개념과 공격성간의 상관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긴 하지만, 낮은 신뢰도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다른 자아개념척도를 사용하거나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Hart 외 그의 동료들(2000)과 Little 외 그의 동료들(2003)의 연구에서는 공격성의 하위유형이 공격행동의 의도와 표현방식에 따라 주도적-외현적 공격성, 주도적-관계적 공격성, 대응적-외현적 공격성, 그리고 대응적-관계적 공격성의 4개 하위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포함한 다른 국내 연구들(박성연, 강지훈, 2005; 박혜경, 박성연, 2002)에서는 주도적, 대응적, 그리고 관계적 공격성의 3가지 하위유형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고 있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Hart 외 그의 동료들(2000)과 Little 외 그의 동료들(2003)의 연구처럼 4개의 하위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또한 요구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의중에서 있는 연변조선족 아동의 대표적 부적응 행동 중 하나인 공격성에 대한 기초적 조사를 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민정, 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종미(1997).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성격과 유발요인. *한국심리학회지*, 10(2), 17-32.
- 노숙영(1997). 중학생의 학교적응, 학업성취, 정서 및 문제행동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내외통제소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민정(2003).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민정, 최보가(2004).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95-104.
- 박성연, 강지훈(2005).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2), 1-14.
- 박혜경,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8), 87-98.
- 오경자, 이해란, 홍강의, 하은혜(1997).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윤리라(1999). 공격성의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및 사회정보처리 특성 -반응적 공격성과 비반응적 공격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아(1999). 초등학생의 집단 괴롭힘 개입유형과 심리적 특성의 관계-자아존중감,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잇혀진 한국인들(2005-01-01). 세계일보.
- 장지순(199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재임(2000). 청소년의 폭력성 예측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복희, 박혜원, 이사라, 이주연, 박민정(2005). 중국 조선족 아동의 사회성·정서 발달과 사회적 영향요인. 부산: 서림출판사.
- 조복희, 이귀옥, 박혜원, 이진숙, 한세영(2004). 연변 조선족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아동학회지*, 25(3), 127-140.
- 한국아동학회(2002). *아동발달백서 2001*. 서울: 한솔교육.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Camodeca, M., Goossens, F. A., Terwogt, M. M., & Schuengel, C. (2002). Bullying and victimization among school-age children: Stability links to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Social Development*, 11(3), 332-345.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rick, N. R., & Werner, N. E. (1998). Response decision processes in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9, 1630-1639.
- Fagen, R. E., Pipper, E. & Moore, M. (1986). Urban youths. *Criminology*, 24(3), 439-471.
- French, D. C., Jansen, E. A., & Pidada, S. (2002).

- United States and Indonesian children's and adolescents' reports of relational aggression by disliked peers. *Child Development, 73(4)*, 1143-1150.
- Guerra, N. G., Huesman, L. R., & Spindler, A. (2003). Community violence exposure, social cognition, and aggression among urb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74(5)*, 1561-1576.
-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en, S. F., & McNeilly-Choque, M. K. (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school-age children: Parenting style and marital linkag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687-697.
-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en, S. F., McNeilly-Choque, M. K., Porter, C. L., & McKee, T. R. (2000). Russian parenting styles and family processes: Linkages with subtypes of victimization and aggression. In K. A. Kerns, J. M. Contretras, & A. M. Neal-Barnett (Eds.). *Family and peers: Linking two social worlds*. Westport, CT: Praeger.
- Harter, S. (1990). Issues in the assessment of self-concep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 LaGreca(Ed.), *Through the eyes of a child*. Boston, MA: Allyn and Bacon.
- Ireland, J. L., & Power, C. L. (2004). Attachment, emotional loneliness, and bullying behaviour: A study of adult and young offenders. *Aggressive Behavior, 30*, 298-312.
- Kochenderfer, B. J., & Ladd, G. W. (1997). Victimized children's responses to peers' aggression: Behavior associated with reduced versus continued victimiz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 59-73.
- Little, T. D., Jones, S. M., Henrich, C. C., & Hawley, P. H. (2003). Disentangling the "whys" from the "whats" of aggressive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2)*, 122-133.
- Marcus, R. F., & Kramer, C. (2001).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Attachment and social competence predictor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2(3)*, 260-275.
- Parke, R. D., & Slaby, R. G., (1983).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In Mussen, P. H., & Hetherington, E. M.(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547-641)*.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Perry, D .G., Kussel, S. J., & Perry, L. 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Perry, D. G., Perry, L. C., & Ramussen, S. (1986). Cognitive social learning mediators of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57*, 700-711.
- Rigby, K., & Slee, P. T. (1993). Australian school children's self appraisal of interpersonal relations: The bullying experience. *Child Psychology and Human Development, 23(4)*, 273-282.
- Riner, M. E. K. (2000). Social ecology model of adolescent interpersonal violence preven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Salmivalli, C., & Kaukiainen, A. (2004). "Female aggression" revisited: variables-and person-centered approach to studying gender differences in different types of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30*, 158-163.
- Schippell, P. L. (2001). The role of Narcissism, self-esteem and attentional biases in childhood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Unpublished Doctoral

-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Schwartz, D.,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 (1997). The early socialization of aggressive victims of bullying. *Child Development, 68*, 665-675.
- Slay, R. G., & Guerra, N. G. (1988). Cognitive mediators in aggression in adolescent offenders: I. Assess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4*, 580-588.
- Tuner, P. J. (1991). The relations between attachment, gender and behavior with peer in preschool. *Child Development, 62*, 1475-1488.
-
- (2005년 6월 29일 접수, 2005년 9월 5일 채택)